흑피부터 베개까지… 이색 수박 '한눈에'

농진청 '맛있는 여름나기' 제안… 당도 등 다채로운 품종 장점 소개

요즘 수박하면 떠오르는 고정된 이미지가 무너지고 시중에서는 껍질이 새까만 수박부터 씨 없는 수박까지 다양한 수박 품종을 만날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최근 주목받는 이색 수박 품종의 특징을 소개하며 맛있는 여름나기를 10일 제안했다.

흑피수박은 수박은 줄무늬가 있다는 편견을 깨고 2017년 가락시장에 처음 선보였다. 흑피수박은 기존의 호피 무늬가 없는 대신 껍질 전체가 검은색을 띤다. 껍질은 검은 색이지만 속은 빨갛거나, 노란색을 띤다. 겨울에 재배해 4~5월 출하하는 흑피수박은 평균적으로 일반 수박 당도인 11브릭스(°Bx)보다 1브릭스(°Bx) 정도 높은 편이다. 소비자들도 '흑피수박이 일반 수박보다 더 달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명 베개수박으로 불리는 장타원형 수박도 새로 등장한 수박 품종 중 하나다. 이 수박은 4kg 내외의 중소형 수박으로 단타원형인 일반 수박(7kg)과 달리 모양이 길쭉하다. 덕분에 좁은 공간에 보관할 수 있고 구획이 나눠진 냉장고 칸에 넣기도 알맞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주목받는 이색 수박 품종의 특징을 소개하며 맛있는 여름나기를 10일 제안했다. 사진은 전시회에 진열된 다양한 수박의 모습이다.

1인 가구를 겨냥한 애플수박은 2kg 이하의 소형 수박으로, 한 사람이 수박 한 통을 먹는 '1인 1수박'이 가능해 먹고 남은 수박을 버리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일반 수박보다 씨가 작고, 사과?배처럼 칼로 깎을 수 있을 정도로 껍질이 얇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도 적다. 생과일 음료, 빙수 등을 담아내는 장식용 그릇으로도 쓰이며 주목받고 있다.

씨를 골라낼 필요가 없는 씨 없는 수박은 일반수박 다음으로 소비자가 많이 선호하는 수박이다. 씨 없는 수박은 2배체 수박과 4배체 수박의 교배로 만들어진 3배체 수박으로, 다른 식물의 유전자를 도입하거나 유전자 순서를 바꿔 개발한 것이 아닌 육종(교배, 개량)기술로 만들어진 수박이므로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

시중에 판매되지는 않지만 시판되는 수박을 개량하는 소재로 사용하는 중간모본 수박 품종 개발도 한창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중소형 수박 품질을 높이고자 다양한 중간모본 품종을 개발했다. '소소원'은 씨의 크기가 일반 수박의 25% 수준으로 작은 수박이다. '시작은꿀', '원씨로'는 씨의 수가 일반 수박의 25% 수준인 100립(알) 이하로 적게 든 품종이다. 2019년 개발한 '원예509호'는 라이코펜 함량이 일반 수박보다 3.3배 높고, '원예510호'는 시트룰린 함량이 일반 수박보다 1.9배 이상 높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우문 채소과장은 "수박은 수분 함량이 약 90%이며 포도당, 과당 등 당류를 5% 함유해 갈증과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라이코펜과 혈관질환 완화 효과가 있는 시트룰린을 함유하고 있다"며 "다양화하는 소비자 기호에 맞춘 품종 개발로 수박 소비 촉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박생산자연합회 이석변 회장은 "당도 높고 아삭한 국내산 수박이 여름 대표 과채류로 소비자에게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사업추진 우수사무소 시상

상호금융 예수금 변산 · 광활농협, 대출금 부귀농협 '우수'

변산농협 신왕철 조합장

광활농협 신광식 조합장

부귀농협 김영배 조합장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0일 지역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금융, 하나로마트 등 사업추진 우수 10개 사무소에 대해 시상했다.

이날 상호금융 예수금 우수사무소에는 변산농협(1,000억원, 조합장 신왕철)과 광활농협(500억원, 조합장 신광식)이, 대출금 우수사무소에는 부귀농협(500억원, 조합장 김영배)이 수상했다.

또 2020년 농식품가공사업 경영부문 동상에는 공덕농협(조합장 문흥길)이 수상했으며, 하나로마트 매출액 증대 부문에는 고창농협(300억원, 조합장 유덕근), 익산원예농협(200억원, 조합장 김봉학), 남원농협(200억원, 조합장 박기열), 정읍원예농협(100억원, 조합장 이대건), 변산농협(100억원, 조합장 신왕철), 고산농협(100억원, 조합장 국영석) 등이 수상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환경 속에서 농업인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힘써준 임직원께 감사하다"며 "건전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도민에게 더욱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기자

식품 품질관리자 인재 육성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내달 17일까지 교육 실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지난 6일부터 식품 품질관리자 양성과정 1기 교육 발대식을 갖고 다음달 17일까지 6주간의 교육을 시작했다.

2021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지역 우수인재의 역량강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도내 예비취업자를 대상으로 식품 품질관리자, 분석기기 운영자, 생산공정관리자 등 식품기업의 필수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이 운영된다.

진흥원은 식품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식품 품질 위생, 식품 안전, 생산 관리 등 전 직종에 대한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식품 법규, 품질인증, 분석 및 생산장비, 기업현장실습, 취업캠프 등 예비취업자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기업 및 대학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수 원장은 "전북의 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식품 산업에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과 실무형 인재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과정별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생산공정관리자 양성과정은 오는 6월 8일부터, 식품 품질관리자 2기 및 시험분석운영자 양성과정은 7월 12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진흥원 홈페이지(www.jif.re.kr)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담당자(063-210-6587)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계좌이동서비스 신청 고객 대상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이달 31일까지 농협은행 계좌이동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5월에는 오래오(5來5)!'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래오(5來5)'는 5월(5), 계좌이동 서비스를 신청해 농협은행 고객으로 오시는(來), 505명(5)의 고객을 의미하는 이벤트로 본격적인 이사철에 농협은행으로 이사 오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 방법은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서 자동납부(계좌간 자동이체·송금 제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이벤트 기간 중에 계좌이동 서비스를 통해 당행 계좌로 자동납부(계좌간 자동이체·송금 제외)를 변경한 후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및 올원뱅크 '이벤트' 탭에서 응모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1등 다이슨에어랩(1명) ▲2등 에어팟Pro(4명) ▲3등 모바일해피머니상품권 1만원권(100명)을 제공하며, 자동납부 신청건수가 3건 이상인 고객은 플라워박스(300명)를 받을 수 있는 추가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김윤상 기자

웹 기반 비대면 대출자동기한연장시스템 오픈

전북은행, 지방은행 최초로… 직원 업무 경감 등 기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직원들의 업무 경감과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은행 최초로 웹기반(URL) 비대면 대출자동기한연장 시스템을 오늘 오픈한다.

코로나19와 금융IT 발달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전북은행의 '웹기반(URL) 비대면 대출자동기한연장 시스템'은 바쁜 일상 속 은행에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보유고객중 대출금 자동기한연장 대상고객은 대출금 만기도래 약 1개월전에 웹뷰어 화면으로 연결되는 URL이 포함된 메시지를 수신하고 해당 URL을 통해 웹뷰어 접속 후, 화면의 안내내용에 따라 대출금 연장을 본인이 진행 가능하며, 연장기간이나 금리 등 조건 확인 후 대출금 연장을 확정할 수 있다.

전북은행은 향후 대상고객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화면을 직접 터치해 자신의 대출금리, 연장기간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금융거래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반복적인 업무가 줄어들면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서비스에 더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한국 은행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언택트 등으로 대표되는 금융산업의 생태계 변화에 발맞추고 고객 편의성 증진을 위해 '웹기반(URL) 비대면 대출자동기한연장 시스템'을 오픈했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고객 설문 및 개선사항 접수를 통해 고객이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전북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 홈페이지(www.jbbank.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전주상공회의소는 '사랑과 감사의 달 5월'을 맞아 10일 역대 사무국 임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주상의, 역대 사무국 임원 초청 간담회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사랑과 감사의 달 5월'을 맞아 10일 역대 사무국 임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4대 이해상 사무처장을 비롯해 제5대 윤태섭, 제7대 권영길, 제8대 김순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상의 현황과 사업을 보고하고 전주상공회의소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한 고견을 청취했다.

이해상 전 사무처장은 지난 1994년 취임 이후 전라북도 기관 최초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며, 전주지식경영포럼을 창립하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2003년 취임한 윤태섭 전 사무처장은 전주상의의 숙원사업이었던 신시가지 부지확보를 비롯해 전북지식재산센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등을 유치하며 전주상공회의소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시켰다. 2013년 취임한 권영길 전 사무처장은 지자체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상의의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제22대부터 제24대에 이르기까지 상공회의소 의원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2015년 취임한 김순원 전 사무처장은 상의에서 34년 근무하는 동안 직원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상의 숙원이던 신축회관 준공과 많은 기업지원 기관들의 입주를 통해 전주상의 효자동 시대의 안정적정착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은 "지난 86년의 역사속에 역대 사무국 임원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전주상의의 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을 이루는 큰 주춧돌이 되었다"며 치하하고, "앞으로도 전주상공회의소에 지금처럼 깊은 관심과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어버이날 맞아 요양원 어르신께 꽃화분 전달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에게 카네이션 등 각종 꽃화분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가족 등 외부인 면회 금지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힘든 투병 생활을 홀로 견디고 계신 어르신을 위로하고 코로나 블루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한 이번 행사는, 새만금 지역 10개 요양원에 계신 440명 어르신에게 꽃화분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별히 공사 임직원이 지난 4일 부안군 노인요양원을 찾아 꽃화분을 드리고 관계자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꽃화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에서 직접 구매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건협 전북도회-새만금청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10일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을 방문해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김태경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새만금 환황해 경제거점으로의 도약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 불리는 새만금 사업에 전북도민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보이며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도내 업체가 다수 참여해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양충모 청장은 "새만금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전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형국책사업이므로 지역의 인력 및 자재·장비 사용은 물론이고 지역건설업체가 다수 참여해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10일 본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박연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강연에 나서고 있다.

'인권존중으로 행복한 조직 만들기'

LX,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예방 등 특별교육

박연정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초청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가 10일 본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갑질 등을 예방하고 직장 내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연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는 '인권존중으로 행복한 LX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박 강사는 "직장 갑질 금지법이 도입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직장 내 괴롭힘도 있고 법·제도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며 "지속적 예방교육을 통해 인식을 전환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LX는 올해 CEO의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고도화하고 ▲LX-자회사·노동조합과 인권경영 협약 체결 ▲인권지수개발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LX 경영지원본부장 오애리 이사는 "조직 내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고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지속적 교육을 통해 서로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